



|  |  |
|--|--|
|  <p>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</p> <p><a href="http://www.emerics.org/">http://www.emerics.org/</a></p> <p>2018. 07. 05.   중동부유럽</p> | <p>「이슈&amp;트렌드」</p> <p><b>최근 중국-중·동부 유럽국의 주요 협력 내용과 평가</b></p> <p>작성   이한나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)</p> |
|--|--|

- 6월 9일~11일, 저장성 닝보(宁波)에서 상무부와 저장성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중국-중·동부 유럽국가<sup>1)</sup> 투자·무역 엑스포<sup>2)</sup>를 개최함.
- 엑스포는 ‘16+1’ 협의체의 ‘중국과 중·동부 유럽국 간 협력을 위한 베오그라드 지침 및 쑤저우 지침’에 제시된 주요 사업임.
  - 올해는 ‘혁신발전 추진, 상생하는 협력 촉진’을 주제로 포럼, 투자 상담, 무역전시, 인문교류가 진행되었고 ‘16+1’ 경제무역협력시범구(닝보) 설립 논의가 이뤄짐.<sup>3)</sup>
  - 동 엑스포가 4년째 개최되고 있는 닝보는 중국의 3대 항구도시로 이른바 ‘16+1’ 협력의 플랫폼 도시로 주목받고 있음.<sup>4)</sup>
  - 닝보시는 엑스포 뿐 아니라 매년 중국-중·동부 유럽 경제무역 촉진 장관급 회의 및 특색 상품전을 개최
  - 또한 ‘17년 시정부 내 중·동부 유럽 전담부서를 설립하였고, 중국-중·동부 유럽국 무역편리화 국가검역시험구와 ‘16+1’ 경제무역협력시범구로 지정됨.
- 중국과 중·동부 유럽국가 정기협의체인 ‘16+1’은 2012년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경제·무역, 금융, 산업협력, 인문교류 등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- ‘17년 중국의 대 중·동부 유럽국가 무역 규모는 총 679.8억 달러(전년 대비 15.9% 증가)
  - 중국의 수출은 494.9억 달러(전년 대비 13.1%↑) 수입은 184.9억 달러(전년 대비 24%↑)
  - 협력분야는 초기에 교통 인프라에 집중되었고 최근에는 에너지, 물류, 농업,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추진 중임.
  - 중국은 부다페스트(헝가리)와 베오그라드(세르비아) 고속철을 건설 중, 헤르체고비나(보스니아)에 석탄발전소 건설
  - 또한 중국은 금융협력을 강조하며, 중국-중·동부 유럽 인터뱅크협회를 설립<sup>5)</sup>

1) 중·동부유럽과 중국의 협의체 C-CEEC(China and Central Eastern European Countries, 16+1); ‘16+1’의 16개국은 알바니아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불가리아, 크로아티아, 체코, 에스토니아, 헝가리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마케도니아, 몬테네그로, 폴란드, 루마니아, 세르비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를 포함

2) China-CEEC Investment and Trade Expo

3) 제3회 경제·무역 촉진 장관급 회의에서 △ 전자상거래 협력 프로젝트 △ 서비스무역 협력 프로젝트 △ 각국 지방도시간 의사소통 시스템 △ 16+1 경제무역협력시범구 설립이라는 4가지 주요 성과를 도출

4) 2017년 닝보의 대 중·동부 유럽국 무역규모는 29.1억 달러(전년대비 26.8% 증가) 중국 전체의 약 4.3%차지, 닝보의 대 중·동부 유럽국 투자프로젝트는 125개로 중국 내 도시 중 선두권

5) 중국개발은행이 인터뱅크협회(China-CEEC Inter-bank Association)를 통해 개발정책협력자금으로 20억 유로를 투자하고 10억 달러의 투자협력펀드도 조성할 계획

표 1. 중국-중·동부 유럽국 고위급 회담 개최 현황

|    | 년도    | 개최도시<br>(개최국)   | 주요 내용 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1차 | 2012년 | 바르샤바<br>(폴란드)   | - 중국-중·동부 유럽 16개국 간의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의 전망과 미래를 계획<br>- 중·동부 유럽국가와 우호협력 촉진을 위한 12개 조치 발표 : 중국-중·동부 투자협력펀드 조성 추진 등  |
| 2차 | 2013년 | 부쿠레슈티<br>(루마니아) | - 「중국-중·동부 유럽국가 협력에 관한 부쿠레슈티 지침」 발표<br>- 교통인프라, 장비제조업 중심의 산업, 투자·무역, 금융, 과학기술, 환경보호 에너지, 인문교류 등 분야의 협력   |
| 3차 | 2014년 | 베오그라드<br>(세르비아) | - 「중국-중·동부 유럽국가 협력에 관한 베오그라드 지침」 발표<br>- 중국과 중·동부 유럽 간 항공 직항 노선 확대<br>고위급회담의 연례화 결정  |
| 4차 | 2015년 | 쑤저우<br>(중국)     | - 「중국-중·동부 유럽국가 협력 중기 계획」, 「중국-중·동부 유럽국가 협력에 관한 쑤저우 지침」 발표<br>- 6대 협력프레임 제시: 일대일로와 중·동부 유럽협력의 연결, 인프라 건설 협력,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모델 구축, 투·융자 방식 혁신, 무역·투자 촉진, 인문교류 확대<br>- 부다페스트와 베오그라드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협약 체결  |
| 5차 | 2016년 | 리가<br>(라트비아)    | - 「중국-중·동부 유럽국가 협력에 관한 리가 지침」 발표<br>- 발트해, 흑해연안의 인프라 건설 투자와 장비제조업 협력<br>- 부다페스트와 베오그라드 고속철 연내 착공 방안 논의<br>- 중국-중·동부 투자협력펀드(100억 유로) 조성<br>- 중국측 제안: 국제 금융기구의 공동 창설, 자동차·철강·기계 등 분야 지원              |
| 6차 | 2017년 | 부다페스트<br>(헝가리)  | - 「중국-중·동부 유럽국가 협력에 관한 부다페스트 지침」 발표<br>- 「16+1 경제무역협력시범구」 건설 제시<br>- 중국과 중·동부 유럽 간 인터뱅크협회 설립, 중국 국가개발은행이 개발협력 자금으로 20억 유로의 차관 제공<br>-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펀드 추가 조성, 현지 16개국 기업의 중국 내 판다본드(국제위안화채권) 발행지원 |

자료: 저자 작성.

□ 중국은 ‘16+1’ 협력을 통해 중·동부 유럽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·무역을 더욱 확대하고,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평가됨.

- 리커창 총리는 ‘16+1’ 협력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<sup>6)</sup>

○ 또한 ‘17년 11월 에스토니아, 리투아니아, 슬로베니아와 MOU를 마지막으로 중·동부 유럽 16개국 모두와 일대일로 협력 MOU 체결

- 지역적으로는 ‘16+1 경제무역협력시범구’ 인 닝보를 활용한 협력 프로젝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○ 무역·투자협력·시스템협력·공공서비스·통신 등 분야의 6대 시범프로젝트와 무역원활화·교통운송·전자상거래 협력 등 20개 중점사업을 추진할 계획

- 한편, EU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대유럽

6) 일대일로의 연선 국가들 중 중·동부 유럽 국가들이 1/4 비중을 차지하며, 고위급회담에서 발표되는 ‘지침’에서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마련되며, 협력 내용도 더욱 명확해지고 있음.

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.

- 독일 비롯한 프랑스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C)는 일대일로 협력 MOU 체결을 거부했고, ‘17년 초 EU는 부다페스트-베오그라드 고속철 사업의 건설 위법성 조사를 한바 있음. **EMERiCs**

그림 1. 저장성 닝보 위치



자료: doopedia 검색자료

그림 2. 중국 일대일로 경제회랑과 중·동부 16개 유럽국 위치



자료: 내부자료